

김소월의 초기시에 투영된 전통과 미의식*

- 특히 신발굴 유작시를 중심으로-

김 효 중**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1920년대 문단과 전통주의
 - 1. 전통주의의 개념
 - 2. T.S 엘리엇의 전통
- III. 김소월 시에 드러난 전통과 미의식
 - 1. 불연속적 세계관의 표상 : 「서울의 거리」
 - 2.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 추구 : 「마주석」
 - 3. 전통과 민속적 토대 「궁인창」
- IV. 나오는 말

【요 약】

본고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문화연구의 맥락에서 김소월의 신발굴 유작시에 담긴 민족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 김소월의 세 편의 시는 그의 초기시가 지향하는 문학적 의식의 다양성과 문학성 및 전통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의 거리」는 소월의 불연속적 세계관이 절묘하게 드러난 작품일

* 이 논문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교비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뿐만 아니라 도시 혹은 잊혀진 전통에 관한 관심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도시생활에서의 권태와 스노비즘에 대한 미적 비판을 가한 작품이다. 「마주석」은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 탐구라는 측면에서 잘나적인 눈에 포착된 사물로서 마주석을 지적, 정서적 상징물로 파악하고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로써 이 시는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일종의 사물시로서 자유로운 음율을 활용하여 현대시적 요소를 갖추고 있으며 시가 빚어내는 샤머니즘적 분위기나 은유구조 역시 이 시가 지닌 독특한 특징이다. 「궁인창」은 소월의 다른 시편들과 차별화되는 작품으로서 구중궁궐에 갇힌 궁녀들의 한을 타령조로 시화함으로써 서북잡가가 지닌 민중적 정서를 유창하게 표출하였다. 전통에 바탕을 둔 4행시의 한 전형으로서 당대 문단의 분위기가 반영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결국 이 세 편의 시를 통하여 소월은 민요시뿐만 아니라 자유시를 동시에 창작하고 인생론적 내용과 그의 불연속적인 세계관을 작품 속에 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소월은 1920년대 대표적인 민요시인으로서만 아니라 자유시를 적극적으로 쓴 시인으로 평가된다.

1. 들어가는 말

작품의 소재 채택에 있어서 보편적인 일반의 것보다는 민족이나 사회 혹은 개인에게 다같이 독자적인 세계를 이루었을 때 작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그렇다면, 가장 한국적인 정서, 한국 고유의 전통의식은 무엇인가 혹은 한층 더 나아가 한국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신과 역사의식은 무엇인가라는 중요한 물음이 제기된다. 특히 우리의 민족시인이며 한국시문학사상 백 여 년을 통하여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애송되어온 김소월에 관해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그의 시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색채가 짙은 에토스ethos가 담긴 시편들이 왜 오늘 이 시대에 논의되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탐색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은 오늘날 운위되는 문화연구와 같은 맥락을 이룬다. 최근에 이르러 문화 혹은 문화학이나 문화연구는 인문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연구는 대체로 영국학, 미국학, 사회학 중 청소년 연구분야, 혹은 문화학의 방법론 예컨대, 매체이론, 페미니즘이론 등에서 수용되었다. 프랑스의 이브 미쇼Yves Michaud 외 다수의 학자들이 저술한문화란 무엇인가(Qu'est-ce que la culture)는 이 시대가 문화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깊은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계화와 다원화로 요약되는 새 천년 시대에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현대적 개념의 문화 즉 인간 활동 전반의 흐름을 주도한 방향을 살펴봄과 아울러 미래문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문화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문화를 “인성, 신화, 문학, 종교, 예술, 무속, 오락, 윤리의식 등”²⁾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인 듯하다. 그리고 문화에 대한 논의는 특히 전통에 관한 문제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이 전통의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전통과의 관련 아래 자주 논의되어 온 것이고 특히 T. S. 엘리엇의 전통과 역사의식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대상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찰하고 작품이 지닌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는 일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우리 시문학사상 김소월은 이미 국민시인으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어 이탈리아의 페트라르카, 러시아의 푸슈킨에 견줄 수 있을 만큼 그의 작품은 한국 근대의 고전(古典)이라 해도 무리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그의 문학이 대중성을 향유하면서 동시에 높은 문학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 발굴된 소월의 유작시 3편³⁾, 즉『서울의 거리』(학생계1권, 5

1) 이브 미쇼 외, 『문화란 무엇인가』강주현 역, 시공사, 2003.

2) 위의 책, 19쪽

3) 이 작품들은 <문학사상 자료연구실>의 소월시 발굴 작업에서 나온 결과로

호, 1920.12), 「마주석」(학생계2권 1호, 1921.4), 「궁인창」(학생계2권, 2호, 1921.5)은 이후에 발표한 작품들에 비하면 미숙한 면이 보이지만 그의 초기시의 경향을 파악하게 하는 귀중한 자료이므로 적극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김소월은 생전에 단 한 권의 시집 *흰달래꽃*(매문사, 1925)을 간행하였고 이 시집에는 총 12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사후 김억이 낸 *소월시초*(박문서관, 1939)를 비롯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온 많은 소월 시집들은 모두 *흰달래꽃*을 근간으로 한 것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며 위에서 언급한 3편의 유작시는 앞으로 새로 간행될 소월시집 속에 추가되어야 하고 다각도로 연구되어야 하고 전승되어야 할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김소월의 중기시에서 보이는 특색이 자연과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감회를 주로 표현하였다면, 초기시에서는 도시 혹은 잊혀진 전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본고는 신발굴 유작시에 대한 연구 및 전통적 시가의 재검토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는 전제 아래 연구방법론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로서 제2장에서 1920년대 문단의 배경을 전

서 소월이 18세(1920) 때 황조를 통하여 문단에 데뷔한 뒤 당시 교양지 학생계에 발표한 작품들이다. 학생계는 1920년 7월 1일 한성도서 주식회사 출판부에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간행하였고 1924년 6월 통권 22호로 중단된 월간 교양지이다. 이렇게 정기간행물을 통하여 이미 발표된 작품을 미발굴 작품으로 취급하는 것은 오세영(문학사상, 2004. 5월호, 76쪽)이 언급했듯이 소월의 어떤 시집에도 수록되지 않아서 시의 존재를 모르고 지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 세 편이 왜 소월시집에서 제외되었는지는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세영(같은 책, 같은 글)은 소월이 자신이 펴낸 *흰달래꽃*에서 배제했던 데 원인이 있거나 소월 자신은 물론 그 잡지에 그 같은 시들이 발표된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추정하였다. 어쨌든 이 작품들이 소월시의 또 다른 특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작품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통주의 개념과 T. S. 엘리엇의 전통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제3장 본문에서는 연구대상이 되는 작품 세 편을 제2장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하여 논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김소월이 초기시에서 시도한 다양한 시적 실험 양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를 통하여 김소월의 현대시사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한다.

II. 1920년대 문단과 전통주의

1. 전통주의의 개념

한국 현대문학사 연구에서 1920년대는 민족주의 문학과⁴⁾ 또는 국민 문학과나 일제말기의 문장과, 전후의 전통과 등을 하나의 경향 혹은 유파⁵⁾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들의 문학적 성격이나 이론적 논지에 공통점이 있음에도 기존의 논의에서 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거론한 예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는데, 최근 박현수⁶⁾가 전통주의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와 같은 1920년대의 시적 경향을 묶어 거론하였으며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 4) 1920년대 국민문학은 성격상 민족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관한 것은 오세영(『20년대 한국 민족주의문학』, 『20세기 한국시연구』, 새문사, 1989, 69-74쪽)을 참고.
- 5) 유파에 관한 논의는 김용직(『민족문학과의 등장과 그들의 활동』, 『한국근대시사』(하), 학연사, 1986)이 상론하였으므로 본고에서 별도로 다루지 않음.
- 6) 전통주의 개념은 서구 문예사조사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문학사에서도 수용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를 논의하고 있는 박현수(『전통주의의 형성』, 『20세기 한국시의 사적 조명』, 한국현대시학회 편, 태학사, 2003, 137-174쪽)의 주장은 새롭게 주목되며 필자는 김소월의 작품을 그의 논의의 연장성상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전통주의에 대하여는 다수의 학자들의 개념적 규정이 있다. 예컨대, “역사상의 과거를 현재적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그것의 부활, 혹은 지속을 도모함으로써 과거와 현재 사이의 살아있는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기획”⁷⁾으로 보거나, “문화를 역사적인 현상으로 파악하여 역사의식을 강조”하고 “주조를 상실하고 자기분열에 빠진 시대의 거점이 전통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전통 속에서 종교적 우주관을 찾으려는 경향에서 그 특징을 찾고 있다.”⁸⁾ 한편, “근대 사회의 위기에 직면하여 그것에 대항하거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신적·문화적·예술적 준거를 전통 속에서 찾으려는 경향” 즉 “기억 속에 저장된 과거의 전통을 되살려 현대 사회가 처한 위기에 대처하면서 동시에 미래적 대안을 모색하는 미학적 프로젝트”를 전통주의로 규정하고 있다.⁹⁾ 최근의 논문에서 “전통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시 창작의 기반과 원류로 채택하는 일련의 경향을 뜻하는 보편적 용어”¹⁰⁾로 본 것은 이 연장선상에 놓이며 본고에서 1920년대 전통주의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전통주의의 특성은 문학사의 연속성을 인식하고 문학의 자율성을 지키며 전통미학의 계승을 추구하는 문학적 경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1920년대는 이와 같은 요소에 민족적 정체성 추구라는 특수성을 지닌다. 그것은 1920년대의 시대적 배경에 기인하는데, 이 무렵 카프가 결성되면서 이들은 조직화된 움직임으로 문학담론의 헤게모니를 잡고 질서를 구축해 나감에 따라 이에 대한 개별적인 이의가 제기되고 점차 이것이 축적되어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 전통주의파라 할

7) 황종연, 「한국문학의 근대와 탈근대-1930년대 후반기문학의 전통주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1991 참조

8) 송기환, 「문장과 전통주의의 현대적 성격」, 태전대 인문과학논문집, 1998, 276쪽.

9) 남기혁, 「한국 현대시의 비판적 연구」, 월인, 2001, 11쪽.

10) 전영주, 「1950년대 시의 전통주의 연구-김관식, 박재삼, 이동주의 시를 중심으로」,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0, 3쪽.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특수한 정치·사회적 상황과 관련되며 조선주의로 대표되는 민족정체성의 탐구는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놓인다.

전통주의가 지닌 특성 가운데 문학사의 연속성 인식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장르에 대한 인식과 계승이라는 노력 속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그래서 전통주의자들은 무엇보다도 시조나 민요에 주목하였는데, 이러한 장르가 문학사적 연속성을 가장 상징적이고 집약적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요조 서정시¹¹⁾는 민요에 바탕을 두고 창작된 시로서 그 저변에는 언제나 우리 민족의 기본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1920년대 초기에 시작되어 후기까지 활발히 창작되고 논의된 새로운 장르이다. 그리고 그 생성 요인을 보면, 당시 시대적 분위기가 전통문화의 탐구와 문화창달의 가치를 높이 든 시기였다는 점, 민족주의 이념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려는 욕구의 팽배, 민중의식의 숙성, 현대시에 정형률 내지 정형시형을 새롭게 적용해 보려는 시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요시를 주로 창작한 대표적인 시인은 알려진 바와 같이 김억, 김소월, 홍사용, 주요한, 김동환 등이며 소재, 내용, 율격, 구조 등의 시적 요인을 통하여 이들의 민요시가 보여주는 공통적인 특성은 문학사적 연속성 지향이다.

2. T. S. 엘리엇의 전통

엘리엇의 초기비평을 읽는 의미는 전통과 탈근대의 결합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얻어낸다는 데에 있다. 그의 「전통과 개인의 재능」(1919)이 20세기 전반기의 가장 중요한 문학비평으로서 전통의 가치를 재인식하도록 하였음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영미비평계는 물론 세계 각국의 문학계에서 여전히 논의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1) 오세영(『한국낭만주의시연구』 일지사, 1986, 10-29쪽)은 민요시와 동등한 개념으로 민요조 서정시를 사용하였다.

본고의 논의 전개과정에서 T. S. 엘리엇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논거로 제시될 수 있으므로 그의 주장 가운데 본고와 관련이 될 만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널리 알려진 그의 전통에 관한 견해를 살펴보자.

전통은 전수될 수 없으며 만일 우리가 전통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치열한 노력에 의하여 전통을 획득하여야만 한다, 전통은 무엇보다도 먼저 25세가 지나서도 계속 시인이 되고자 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필수적이라 부를 수 있는 역사감각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감각은 과거의 과거성뿐만 아니라 현재의 과거성에 대한 지각력이다. 역사감각은 우리에게 자신의 세대를 깊이 숙고할 뿐 아니라 호머 이래의 유럽문학 전체와 자신의 문학 전체와 자신의 세대를 동시적으로 존재하고 동시적인 질서를 구성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게 만든다. 시간성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시간성의 의식인 이러한 역사감각은 한 작가를 전통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이다.¹²⁾

위의 인용을 통하여 보는 바와 같이 T. S. 엘리엇이 의미하는 전통은 역사감각과 연결되며 유럽문학에서 호머와 동시대에 이르는 동시적 질서를 인식하는 능력이다. 전통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여 새로운 차원에서 시인이 시를 쓰게 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한 것은 실로 놀라운 통찰력이다. 개인의 재능은 전통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재능과 전통이 역동적인 대화적 관계를 유지할 때 살아있는 역사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역사는 현재를 위해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다.

T. S. 엘리엇의 전통에 관한 견해는 결국 과거의 전통이 미래의 탈근대와 만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며, 환언하면, 전통은 탈근대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T. S. 엘리엇의 생각을 정리하면, 과거의 생명력은 현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아래에 인용하는 글 속에서 이

12) T. S. Eliot, *The Sacred Wood*, Methuen, London, 1920, 14쪽.

것이 확인된다.

전통은 직접적인 목표가 아니라 올바른 삶의 부산물로 간주될 수 있다. 전통은 말하자면 피와 관계가 있다. 전통은 과거의 활력이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단이다. 피와 두뇌가 협동해야 사상과 감정이 화합된다.¹³⁾

이와 같은 T. S. 엘리엇의 견해와 주장은 T. S. 엘리엇 당대의 유럽에서만 유용한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으며 우리 시인들의 작품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요약하건대, 시의 주목적은 독자를 적절하게 즐겁게 만들고 도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며 생생한 이미지와 감미로운 운율을 통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와 청자들을 교화시키고 세련되게 만드는 것¹⁴⁾이라는 T. S. 엘리엇의 주장은 현재에도 유효하며 그런 점에서 이미 전통문화 재검토에 관한 문제제기는 심심치않게 이루어져왔다.¹⁵⁾ 본고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소월의 초기시에 나타난 전통과 미의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Ⅲ. 김소월 시에 드러난 전통과 미의식

1. 불연속적 세계관의 표상 : 「서울의 거리」

서울의 거리!

산그늘에 주저 안겼는 서울의 거리!

13) T. S. Eliot, *After Strange Gods, A Primer of Modern Heresy*, Faber, London, 1934, 30쪽 참조

14) T. S. Eliot, *Selected Essays*, Faber, London, 1932, 199-200쪽 참조

15) 조남현, 『문학과 정신사적 자취』, 이우출판사, 1984, 6-14쪽 참조.

이리저리 찌어진 서울의 거리!
 창백색의 서울의 거리!
 거리거리 전등은 소리 업시 울어라!
 어둑 축축한 육월 밤의
 창백색의 서울의 거리여!
 지리한 림우(霖雨)에 썩어진 물건은
 구역나는 취기를 흘너 저으며
 집집의 창틈으로 끄러들어라.
 음습하고 무거운 회색공간에
 상점과 회사의 건물들은
 히스테리의 여자의 거름과도 갖치
 어슬어슬 흔들리며 맥기여 가면서
 검누른 거리 우에서 방황하여라!
 이러할 때러라. 백악의 인형인듯한
 귀부인, 신사, 또는 남녀의 학생과
 학교의 교사, 기생, 또는 상여는
 하나 둘씩 아득이면 떠돌아라.
 아아 풀 낚은 갈바람에 꿈을 깨 힌 장지 배암의
 우울은 흘너라 그림자가 떠돌아라……
 사b홀이나 굴른 거지는 밭쌀스럽게도
 스러질 듯한 애앓은 목소리의
 『다리마님! 적선합시오, 적선합시오!』……
 거리거리는 고요하여라!
 집집의 창들은 눈을 감아라!
 이때러라, 사람 사람, 또는 윈 물건은
 곱픈 잠 속으로 들러하여라
 그대도 쓸쓸한 유령과 갖튼 우울은
 오히려 그 구역나는 기를 불고 잇서라.
 아아 히스테리의 여자의 괴롭운 가슴엿 꿈!
 떨렁떨렁 요란한 종을 울리며,
 막 전차는 왓서라, 아아 지내 갖서라.
 아아 보아라, 들어라, 사람도 업서라,

고요하여라, 소리 좇차 업서라!
 아아 전차는 파르르 떨면서 울어라!
 어둑 축축한 육월 밤의 서울 거리여,
 그리하고 히스테리의 여자도 只今은 업서라.¹⁶⁾

이 시는 소월의 문학을 일관되게 지배하는 원리 즉 개인과 전체를 연속시키는 노력이 구체화된 시라고 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전체의 단절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삶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서 오세영은 이를 “불연속성”¹⁷⁾이라는 용어로 규정한 바 있거니와 이는 개인과 전체 삶의 동질성이 해체된 식민지 삶의 폐쇄성을 가리킨다. 즉 미련과 좌절, 원망과 자책이 보여주는 정서상의 불연속이다. 소월의 시에 부정적 세계관이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정서 때문이다. 김동리가 소월시의 본질을 “청산과의 거리”¹⁸⁾로 파악한 것도 인간과 자연 혹은 주관과 자연 사이의 거리가 있다는 주요모티브에서 비롯한 것이고 그 근본은 비극적 세계관에 있다. 김동리가 같은 글에서 “초월적으로 완성되어버린 작품”, “조선의 서정시가 도달할 수 있는 한 개 최상급의 諧調를 보여준 작품”이라고 절찬한 이래 「산유화」가 인간과 자연의 거리감이 표상된 작품으로 소월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의 시 「서울의 거리」는 소월의 공간적 불연속성이 아주 잘 반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식민지 상황 아래에서 서울은 더 이상 정상적인 서울이 아니고 “산그늘에 주저 안젓는”, “이리저리 찌어진”, “창백색의” 거리로 객관화되어 있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 시는 그의 어느 작품에서 볼 수 없는 긴 산문시 형식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시를 뒤덮은 일상의 언어가 끝나는 데서 얻어진 깨달음, 여기서 얻어진 결과가 「산유화」라 할 수

16) 學生界 1권, 5호, 1920. 12.

17) 오세영, 『한국낭만주의시연구』 일지사, 1983, 303쪽.

18) 김동리, 「청산과의 거리」, 『문학과 인간』 백민출판사, 1952.

있겠다. 즉 「서울의 거리」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덜 익은 표현들이 「산유화」에 이르러 극히 절제되고 잘 다듬어진다.

한편, 그의 흰달래꽃에 수록된 시편들이 대부분 민요조 율조 혹은 정형시를 지향하는 율조를 지녔다면, 이 시는 과감하게 그것을 깨고 자유분방한 자유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그의 자유시 탐구에서 얻어진 실험정신의 결과인데, 그만큼 소월은 민요시에 필적할 만큼 자유시에 대한 관심이 컸고 아이러니컬하게도 그의 이러한 산문정신은 그의 시에서 율격 표출을 성공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가 그의 스승 안서가 추구한 격조시처럼 경직된 고정율에 빠지지 않고 살아있는 리듬을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실히 자유시 탐구에서 얻어낸 결과이다.

소재적 측면에서 이 시는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도시이다. 소월의 중기시에서 보이는 특색이 자연과 일상적인 삶을 소재로 하여 자신의 감회를 주로 표현하였다면, 초기시에서는 도시 혹은 잊혀진 전통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도시의 퇴폐적 삶을 묘사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모더니즘적 특성을 보여 주기도 한다. 서양의 경우 도시를 시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이는 보들레르는 산업화로 접어든 근대사회를 상징하는 도시의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파리에서 보고 학의 꽃(1857)에서 부르조아지의 진보주의적 낙천주의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시적 정서는 모더니즘과 폐시미즘에 연결되어 있으며 시 속의 파리는 어두운 것으로 묘사되어있는데, 릴케의 할테의 수기에서의 파리의 모습이나 T. S. 엘리엇의 황무지에 나타난 런던의 모습도 어둡다. 김소월의 시에서 묘사된 서울 역시 어둡고 음습하고 우울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어서 흥미롭다.

한 폭의 수채화를 그리듯이 애수에 젖어있는 시적 정서는 옅기는 하지만 탐미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으며 정경의 묘사로 시종일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월의 위의 시는 김광균의 「도심지대」¹⁹⁾와도 통한다.

19) 참고로 김광균의 「도심지대」를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김광균의 시에서 보이는 애수는 도시적인 것이며 김소월의 시에서 보이는 울음 역시 도시적인 것이다. 김광균의 시적 수사가 신선한 것은 그의 상상력에 근거한 아날로지를 기초로 한 것인데, 예컨대, “분수”가 “우산을 썼다”라든가, “모자가 없는 포스트가 바람에 불리운다”라든가, “글라스컵 조그만 도시에 밤이 켜진다” 등은 그 좋은 예이다. 김소월은 서울의 거리에 초점을 맞추어 “山그늘에 주저 안젓는 서울의 거리”를 묘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그 시야를 도심 쪽으로 옮겨가면서 도시생활에서의 권태와 스노비즘에 대한 미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일상시가 그러하듯이 이 시도 소재나 기법면에서 자극적이거나 충격적이지 않다. 매일의 삶 속에 어떤 충격적 새로움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상시가 지닌 의미가 일상적인 삶에 어떤 긴장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 충분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의 거리』의 작품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에서 자주 쓰인 느낌표나 말없음표는 시인의 시적 대상에 대한 강한 인식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23행의 “타리 마님! 적선합시오, 적선합시오!”라는 대화법의 삽입은 또한 소월의 다른 시에서 보기 드문 독특한 기법으로서 현장감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²⁰⁾ 김광균 시에서는 행 구

만주제국영사관 지붕 우에 노-란 깃발/노-란 깃발 우에 따라야만한 한 포기 구름//로-타리의 분수는 우산을 썼다/바람이 고기서 조그만 카-브를 돈다//모자가 없는 포스트가 바람에 불리운다//그림자 없는 가로수/뉴-스속보대의 목선 스피-커//호로도 없는 전차가 그 밑을 지나간다/조그만 나의 바리에테어//영국풍인 공원의 시계탑 우에/한 떼의 비둘기 때문에 날개//글라스컵 조그만 도시에 밤이 켜진다.

- 20) 대화체는 박용철의 번역시를 통하여 당시 우리 문단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그의 창작시에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같은 시기의 김소월 역시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창작시에 반영한 듯하다. 이에 관한 것은 줄저(학용철의 하이네 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정음사 1987, 130-132쪽)에서 상론함.

분을 하고 있으나 김소월의 이 시에서는 행 구분을 하지 않고 파격적으로 자유시형을 택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소월은 그의 초기시에서 내용과 형태면의 다양한 시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 추구 : 「마주석」²¹⁾

날로 오고가는 길손의 조망
조모(朝暮)로 기다리는 석신(石神)
물 우에 몸은 교변(橋邊)
묵묵히 섰슴
그대요 마주석, 애(愛)의 표상.

날과 비와 바람의 하늘 아래
흐름(流)을 마주 꿈 꾸는 꿈
생태(生苔) 묵(宿)는 봄가을
그림자 적키
그대요 마주석, 영(靈)의 표상.²²⁾

이 시가 특이한 이유는 마주석이라는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 의미를 추구하고 있고 그 자체가 지닌 의미는 우리 문화가 지닌 독특한 무속

21) 마주석은 정확히 뜻풀이하기는 어려우나, 오세영이 “돌로 된 장승(?)”(문학사상』5월호, 2004, 79쪽)으로 유추한 바 있듯이 “돌로 된 장승”을 뜻하는 것으로 봄이 옳을 듯하다. 장승의 사전적 의미는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또는 길 어귀나 길가에 세운 표말”. 10리나 5리 간격으로 이수(理數)를 나타내 이정표 구실을 하거나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한다. 대개 남녀로 쌍을 이루어 한 기둥에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 또 한 기둥에는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고 새긴다.(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1999, 5226쪽)이다.

22) 학생계』제2권 2호, 1921. 4월호.

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 추구라는 측면에서 이 시를 보면, 메시지가 배제되고 서술로만 이루어져 있다. 시인은 마주석이 무엇인가에 관한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자신의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이를 사랑의 표상과 영혼의 표상으로 상징하였다. 소월의 시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에서 볼 수 있는 주관성이 완전히 벗어나고 철저히 즉물성의 한 틀을 보여주고 있다.²³⁾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시인의 찰나적인 눈에 포착된 사물로서의 마주석을 지적, 정서적 상징물로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는 태도가 보이고 있고. 둘째, 마주석을 석신, 교변, 애의 표상, 꿈, 그림자 직키²⁴⁾ 등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고 있으며, 셋째, 전통적인 음율에서 벗어나 파격적으로 자유로운 음율을 활용함으로써 현대시가 지향하는 한 요소를 담고 있다.²⁵⁾ 이 시에는 사상은 없고 암시적인 서술이 주가 되어있다. 그래서 독자의 상상과 아날로지의 폭을 넓혀 주고 있으며 그만큼 독자에게 해방감을 준다.²⁶⁾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사물시의 성격을 띤다. 그러나, 이 시는 흰달래꽃에 수록된 시편들에 비해서 객관적으로는 수준이 다소 미흡하고 회고적이고 감상적이며 표현은 깔끔

23) 이와 같은 시적 경향은 김동명의 시에서도 유사하게 드러나는 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줄고(『김동명과 바쇼오의 대비연구』, 희교문학34집, 한국비교문학회, 2004. 131-160쪽)를 참조할 것.

24) “그림자 직키”는 원문 그대로 옮긴 것인데 뜻이 불분명하나 “그림자 지킴이”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을까 짐작된다.

25) 이와 같이 보는 근거는 시 잡지 포에트리(Poetry)(1913)에 나타나 있는 『이미지즘 장령』에 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그 내용의 요체는 1) 순간 속에 지적 정서적 복합체를 드러낼 것, 2) 구체적인 사물 그 자체를 명확한 말로 표현할 것, 3) 인습적인 음율을 버리고 새로운 음악적 문장을 만들 것이다.

26) 소월의 잘 알려진 「왕십리」같은 작품도 이와 같은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히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지적²⁷⁾받기도 하지만, 그의 다른 시에 비하여 독특한 측면이 있다. 예컨대, 마주석을 “석신”(1연 2행), “애의 표상”(1연 5행), “영의 표상”(2연 5행)으로 상징한 점에서 샤머니즘의 분위기를 보여주며 이러한 은유구조는 이 시의 핵(核)을 이룬다.

이 시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작품은 「꿈」²⁸⁾인데, 형식적으로는 준민 요시에 해당하며 고향, 봄 등 사물을 소재로 한 시이다. 1행에서 꿈이 영혼의 해적이라는 인식적 측면에서는 물론 무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점, “영(靈)의 해적”은 곧 “서름의 고향”이라고 한 은유구조가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점 등에서 「마주석」과 유사하다. 다만 「꿈」은 2행에서 주관성이 표출되고 있어서 소월의 다른 시편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언해둔다.

다음, 「마주석」에 나타난 무속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사실 소월 시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징의 하나는 무속성²⁹⁾이다. 우선, 그의 「산유화」를 읽었을 때 「접동새」와 「초혼」이 연상되는데, 「접동새」에서는 누나로 화한 울음소리의 구슬픈 한탄을 느끼게 되고 「초혼」에서는 사랑하는 이를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산유화」에는 무녀들이 좋아하는 산, 꽃, 새 등이 등장한다. 「산유화」를 이해하는 첩경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를 어떻게 풀이하느냐에 있다. 세상의 많은 꽃 중에 특히 산에 피는 꽃에 주목하고 있고 그것도 “저만치”에 있는 것으로 그곳은 김소월이 꿈꾸는 이상향이기도 한데, 소월은 일제의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고요한 저만치에서 핀 꽃이 되거나 새가 되고 싶었던 것이다.³⁰⁾ 새는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멀리 날

27) 오세영, 「거울에 비친 초기 시의 미의식」, 『문학사상』 2004. 5월호, 79쪽.

28) 꿈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영(靈)의 해적인 서름의 고향/울자 내 사랑 꽃지고 저무는 봄.

29) 서정범, 「소월시에 나타난 무속성」, 『한국문학과 문화의 고향을 찾아서』 문학사상사, 2001, 60-63쪽 참조.

30) 무녀들은 틈틈이 산에 가서 기도하거나 지성을 드린다. 그들은 사람이 죽

아다닐 수 있어 현실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띤다. 소월은 당시의 숨 막히는 현실에서 벗어나 작은 새가 되어 산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심정을 새에 비유한 것이다.

한편, 소월이 추구하는 이상향은 저승세계와 통한다. 무속인들이 몸은 현실에 있으나 정신은 저승의 생활을 하고 있듯이 소월은 현실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마주석』은 샤머니즘적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이 특색인데, 마주석을 “석신”(1연 2행), “애의 표상”(1연 5행), “영의 표상”(2연 5행)으로 상징한 점에서 그러하다.

3. 전통과 민속적 토대 : 『궁인창』

동굴자 이지러지는 금을 달 아래
 근(塵)여서 떨어지는 꽃을 보고서
 다시금 뒷 기약을 맺는 이별과
 지각나자 늙어 감을 나는 만났노라.

뜨는 물 김 속에서 바라다보니
 어젯 날의 흰눈이 덮힌 山 그늘로
 놀하게도 희미하게 빗갈도 업시
 쓸쓸하게 나타나는 오늘의 날이여.

죽은 나무에 마른 잎이 번쩍거림은
 지내간 넷날들을 꿈에 보람인가
 서리 속에 터지는 꽃 봉오리는

으면 혼이 되어 산으로 간다고 생각하며 영혼이 산에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산은 곧 저승이다. 저승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이며 상여가 나갈 때 저승을 북망산(北郎山)이라고 한다. 또한 무덤은 산에 있다. 무녀들은 괴로울 때 산에 가며 그곳에 가면 마음이 맑아지고 영험(靈驗)해질 뿐 아니라 산에 있는 무덤을 보면 평정을 얻고 친밀감을 느낀다고 한다.(서정범, 같은 책, 61쪽 참고)

물고 보낸 봄을 설어 함인가.

생각사록 몇 없슨 내 가슴에는
 불사록 시울 지는 내 얼굴에는
 빗기는 한숨뿐이 프르러 오아라
 금음 새벽 지새는 달의 그늘에.³¹⁾

이 시는 소월의 다른 시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시세계를 보여준다. 즉 구중궁궐에 갇힌 궁녀들의 한(恨)을 타령조로 노래함으로써 서북잡가가 지닌 민중적 정서를 유장하게 표출하고 있다.

소월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정서가 한임은 이미 자주 거론되어 온 것으로서 한민족의 심층에 깔린 정서이다.³²⁾ 그리고 그의 시에서의 한 역시 불연속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미움과 사랑이라는 두 모순된 감정을 함께 수반하는 개념이다. 소월의 한은 님의 상실에서 기인한다. 그리고 그가 표상하는 님은 포괄적인 존재로서 연인이나 조국 혹은 초월적인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한은 개인적으로는 연인과의 이별에서, 현실적으로는 식민지 상황의 조국 상실에서, 존재론적으로는 생의 유한성에서 오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이 시는 소월의 시세계의 근원이 전통과 민속에 닿아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작품이기도 하여 인식론적인 시, 전통에 대한 시, 민요시에 해당한다. 그만큼 소월시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먼저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1연에서 시적 화자가 지는 달과 떨어지는 꽃에서 이별을 간파하고 이러한 깨달음과 더불어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을 노래하고 있다. 「진달래꽃」으로 대표되는 소월 시의 보편적인 주제가 이별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시

31) 학생계, 제2권 8호, 1921. 5.

32) 정한모(『근대민요와 두 시인』, 『문학사상』 통권 8호, 1973.5)는 한국민요의 정서가 소월시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점을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

의 이별을 소재와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3음보율격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민요시에 해당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인 바와 같이 소월시의 기본율격이 3음보(간혹 4음보)인 만큼 이 시에서도 율동적, 가창적 성격이 두드러진 3음보율격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연에서 어제라는 과거에 이은 오늘의 현재가 쓸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3연에서 죽은 나무로 표상되는 시적 화자는 지나간 날들을 서러워하며 4연에서 한숨뿐임을 노래하고 있다. “~노라, ~이여, ~인가, ~아라” 등의 감탄형 어미는 한탄을 표현하는 데에 적절하게 활용되었다. 그리고 이 시에서 활용된 어휘, 이미지리, 리듬 등이 민요와 아주 흡사하다. 총4연, 각연 4행으로 된 이 시는 전통에 바탕을 둔 민요적 서정시로서 4행시³³⁾의 전형을 보인 것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V. 나오는 말

세계화와 다원화로 요약되는 새밀레니엄시대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문화가 아니라 현대적 개념의 문화 즉 인간활동 전반의 흐름을 주도한 방향을 살펴봄과 아울러 미래문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그래서 최근 문화연구는 인문학 전반에 걸쳐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고 인문학 연구가 지향해야 할 대안의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33) 한국시문학사상 4행시는 1920년대 민요시인들이 닦아놓은 시형으로 이를 심화시켜 확산되는 양상이 두드러진 것은 1930년대이다. 이 시기에 가장 활동이 컸던 시인은 김영랑, 이하운, 양주동, 모운숙, 장정심, 김광섭, 이육사, 박귀송 등이다. 특히 박용철은 하이네의 4행시를 집중적으로 번역, 소개하여 4행시의 보급에 기여한 바가 크다. 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졸저 《박용철의 하이네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정음사, 1987, 146-147쪽)를 참고할 것.

본고는 위와 같은 문화연구의 맥락에서 김소월의 신발굴 유작시에 담긴 민족문화와 민족의 정체성을 문학 속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그 주된 목표는 작품이 지닌 시공을 초월한 가치와 창조성을 재발견하여 우리의 새로운 전통과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함이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분석한 김소월의 세 편의 시는 그의 초기시가 지향하는 문학적 의식의 다양성을 확인하게 하는 시이며, 작품이 지닌 미학적 성과 전통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고는 논의의 전개과정에서 T. S. 엘리엇이 주장한 전통론이 문학연구에서 설득력이 있다는 전제 아래 이를 논거로 작품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의 거리」는 소월의 불연속적 세계관이 절묘하게 드러난 작품으로서 대표작으로 꼽히는 「산유화」의 창작 이전의 과도기적 작품이다. 그리고 도시 혹은 잊혀진 전통에 관한 지대한 관심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도시생활에서의 권태와 스노비즘에 대한 미적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시에서 쓰인 대화체는 특히 시에서 현장감을 살리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며 행 구분을 배제하고 자유시형을 실험해 보인 것도 이 시가 지닌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마주석」은 사물에 대한 인식론적 탐구라는 측면에서 찰나적인 눈에 포착된 사물로서 마주석을 지적, 정서적 상징물로 파악하고 시로 형상화하였다. 이로써 이 시는 객관성을 확보하려 한 일종의 사물시로서 자유로운 음율을 활용하여 현대시적 요소를 갖추고 있다. 시가 빚어내는 샤마니즘적 분위기나 은유구조 역시 이 시가 지닌 독특한 특징이다.

셋째, 「궁인창」은 소월의 다른 시편들과 차별화되는 작품으로서 구중궁궐에 갇힌 궁녀들의 한을 타령조로 시화함으로써 서북잡가가 지닌 민중적 정서를 유창하게 표출하였다. 전통에 바탕을 둔 4행시의 한 전

형으로서 당대 문단의 분위기가 반영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채택된 위의 세 편의 초기시는 소월이 다양한 시적 실험을 통하여 점차 민요시 계열의 인생론적 내용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려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 작품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소월의 불연속적인 세계관이 민요시와 자유시라는 두 대립된 시형을 통해서 드러날 뿐 아니라 내용을 통해서 공간적 불연속성을 표출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그를 20년대 대표적인 민요시인으로만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유시를 적극적으로 썼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중국, 일본은 물론 동남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류(韓流)의 열풍은 유럽 특히 베를린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우리 문화 전통의 실체를 파악하여 세계에 보급하는 작업은 더욱 심화,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많은 문화재의 발굴과 보존이 시급한데 우리 문학연구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본고 역시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시도된 것이다.

주제어 : 에토스(ethos), 이브 미쇼(Yves Michaud), 엘리엇(T.S. Eliot), 전통(tradition), 민요(folk song), 불연속적 세계관(discontinuity world view), 문화(culture), 인식론 (epistemology), 존재론 (ontology), 한류(The Korean wave)

참고문헌

- 구중서, 『툰단시대의 문학』 전예원, 1981.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대계』I, 민음사, 1994.
 김재홍, 『한국현대시의 사적 탐구』 일지사, 1998,

- 김춘수, 『김춘수 사색 사화집』 현대문학, 2002.
- 김효중, 「박용철의 하이네 시 번역과 수용에 관한 연구」, 정음사, 1987.
- 박두진, 『현대시론』 일지사, 1979.
- 서정범, 「소월시에 나타난 무속성」, 한국문학과 문화의 고향을 찾아서』 문학사상사, 2001.
- 신석초, 「시문학잡고」, 『시는 늙지 않는다』 용성출판사, 1985.
- _____, 『신석초전집』 권, 용성출판사, 1985.
- 오세영, 『20세기 한국시연구』 새문사, 1989.
- _____, 『한국낭만주의시연구』 일지사, 1983.
- 이브 미쇼 외, 『문화란 무엇인가』 강주현 역, 시공사, 2003.
- 정한모, 『한국현대시현장』 박영사, 1983.
- 조남현, 『문학과 정신사적 자취』 이우출판사, 1984.
- 최원규, 『한국 현대시의 성찰과 비평』 국학자료원, 1993.
- 최윤영, 「문화연구와 이방인」, 『희교문학』 27집, 2001.
- 한국현대시학회, 『20세기 한국시의 사적 조명』 태학사, 2003.
- Assmann, J. *Das Kulturelle Gedächtnis*, München. 1999.
- Böhme, H. und Scherpe, K. R.(hg). *Literatur und Kulturwissenschaften. Positionen, Theorien*, Reinbek bei Hamburg, 1996.
- Eliot, T. S., *The Sacred Wood*, Methuen, London, 1920.
- _____, *Selected Essays*, Faber, London, 1932.
- _____, *After Strange Gods, A Primer of Modern Heresy*, Faber, London, 1934.
- Milano, P., *The Portable Dante*, Penguin Books, New York, 1979
- Ninning, A. *Metzler Lexikon. Literatur- und Kulturtheorie*, Stuttgart, 1998.
- Norton, C. E. *The Devine Comedy of Dante Alighieri*, Encyclopedia Britannica, Inc., London, 1978,

<Abstract>

Tradition and aesthetics reflected in So-Weol Kim's Poems
 - On his recently-found posthumous poems -

Kim, Hyo-Joong

In this era of the New Millenium, where globalisation and polarisation abounds, it is necessary to look back on the trends of culture and also to predict future tendency. Therefore, cultural study has become a new paradigm and a very important branch of studies in the Humanities.

This article focuses on aspects of Korean culture and identity in So-Weol Kim's recently-found posthumous poems in order to establish our tradition and a new paradigm based on the everlasting values and creativity in his works. Three pieces of his works in the article are good examples that reveal diversity of So-Weol Kim's literature and they contain aesthetic qualities and traditional values. In support of T. S. Eliot's theory of tradition, this article suggests as follows;

First, 「서울의 거리Seouluigeory」 is a poetic expression about a city or a forgotten tradition. It criticises boredom and snobbism city life. Conversational phrases make the poem alive with experiment of free styles.

Secondly, 「마주석Majuseok」 is a epistemological approach to things. It depicts 「마주석Majuseok」 as an intellectual and emotional symbol and gives poetic form to it thus securing objectivity. Shamanistic atmosphere and metaphor are the poem's characteristic.

Thirdly, 「궁인창Gunginchang」 is quite different from his other works in that it describes sorrow of court ladies in a traditional Korean tune which contains emotions of local people. This style reflects the trends of the literary circles in those days.

The above three works of early days suggest that he experimented with traditional styles to express truth of human existence. The Korean wave, which has mainly spread into China, Japan, and Southeast Asia, has reached Europe. The efforts to identify characteristics of Korean values and let them known to the world should be made. It is also needed in literary study.

김효중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화: 053-850-3121(연구실) 011-9382-7095

e-mail: hjkim4@cu.ac.kr

이 논문은	2005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5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5년	6월	30일	간행함